

45km 늘어난 두바퀴의 행복...천도천색 천리길 500km로

신안 12개섬 자전거로 둘러보기...郡, 여행상품 개편
다도해·노을길·김환기 생가 등 둘러보며 라이딩 만끽

신안 '천도천색 천리길'이 40여km 늘어난다. 북부터 밀려드는 자전거 여행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은 천도천색 천리길을 기존 455km에서 500km로 확대 개편해 섬 자전거 투어 상품을 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신안 12개 섬을 둘러볼 수 있도록 7개 코스(455km)로 설계된 기존 코스를 유지하면서 삼도대교로 연결된 하의·신의도 코스를 하나로 묶는 대신, 중부권 코스를 자은·압태도, 안좌·팔금도 등 2개 구간으로 나눴다.

압태도와 증도, 임자도 등 큰 섬은 개별 코스로 조성했고 자은·압태, 팔금·안좌도를 둘러보는 코스와 비금·도초, 하의·신의를 연결하는 코스로 구분,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했다.

작은 해안마을을 훑고 지나가면서 지역민들의 어촌 생활을 접할 수 있어 섬 라이딩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압태도 코스는 신안군청을 출발, 죽도 노들길~송공산 분재공원으로 이어지는 47km 구간으로, 송공산 분재공원과 저지 노을 미술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전경이 백미로 꼽힌다.

슬로시티 증도를 둘러보는 코스는 신안군 관광안내소~해저유물발굴기념비~짙둥어다리~화도 노들길~태평염전까지 44km로, 느림의 여유로움과 비슷한 풍광에서 오는 지루함을 떨쳐낼 볼거리가 많다.

임자도 코스(54km)에는 전국 첫새우의 70%를 생산하는 전장포를 비롯, 12km에 걸친 국내 최장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대광해수욕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은·압태를 둘러보는 90km 코스는 압태오도항~에로스박물관~은암대교~자은고교항~해남이길~백길해변~추포해수욕장 등으로 이어지며 안좌·팔금



신안군이 섬을 자전거로 둘러보는 여행객들을 위한 자전거 코스 정비에 나섰다. 자전거로 섬 투어를 즐기는 여행객들.

〈신안군 제공〉

구간은 안좌 북호항을 출발, 반월·박지목교~김환기생가~팔금채일봉전망대까지 아우르는 75km에 이른다.

비금·도초도 코스(90km)도 기존 71km에서 20km를 늘려 이세돌 고향으로 전국 최초로 천일염을 생산한 비금도 하트 해

변과 도초도 풍성사구, 수국공원, 시목해변 등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도록 했고 흑산도 코스(25km)는 정약전이 후학을 양성하던 사촌서당을 비롯한 유배문화공원이 포함돼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와 큰바위열

굴, 농민운동기념관과 신안에서 가장 많은 천일염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의·신의 코스는 75km다.

신안군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두 차례씩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도와 가이드북을 새롭게 만들고 모바일 앱도 업데이트해 자전거로 섬 풍광을 즐기며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 주민 절반 “도청 이전 지역발전 기여”

무안 지역민들 절반 이상이 전남도청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무안군이 최근 발표한 '2017년 무안군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54.8%가 “전남도청 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0~63%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권역별로는 신도서관 72.6%, 농촌권 41.9%로 나타났다.

전남도청은 지난 2005년 10월 광주에서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로 이전했으며, 올 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안군이 828가구의 만 1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가구, 소득·소비, 교육, 보건, 환경 등 13개 부문 60개 항목에 걸쳐 방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에서 ‘지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묻는 질문에 ‘가지고 있다’(45.6%), ‘보통’(44.5%), ‘가지고 있지 않다’(9.9%)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높을 수록 비율이 높았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영광 초·중·고교길 안전조끼 보급

郡, 교통사고 예방 기대... 전국 지자체 첫 시행

영광에서는 새학기부터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고 등·하교하는 초·중·고교생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광군이 초·중·고교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끼 보급에 나서면서다.

광주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영광색 가방 안전 덮개처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물품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도됐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녹색어머니회는 최근 영광중앙초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조끼 전달식<사진>을 갖는 등 영광지역 16개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안전조끼 2400개를 보급했다.

안전조끼는 노란색으로 형광색 띠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도록 했으며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의 하나로 영광군의 보조금 2100만원 지원받아 공급했다.

영광군 등은 학생들의 현장학습이나 야외활동 착용토록 해 교통사고를 비롯,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광녹색어머니회 강윤례 회장은 “신학기부터 16개 초·고 2400여명의 학생들의 등·하교나 야외활동에 안전조끼를 착용토록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새 얼굴

“지역민에 다가가는 따뜻한 경찰 될 것”

이 을 신 무안경찰서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치안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을신 신임 무안경찰서장은 취임식을 갖고 “지역민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치안 활동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장은 지난 1994년 경찰간부후



보(42기)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경기청 경비교 통과장, 제주자치지방청 경무과장, 보안과장 등을 지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선제적 소방활동으로 지역민 생명 보호”

박 주 익 영광소방서장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소방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박주익(58) 신임 영광소방서장은 취임식을 갖고 “원칙을 준수하는 소방 예방 활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지난 1993년 소방위 공채



로 입문, 영암소방서 소방과장, 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등을 지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점 646㎡(전) 국제양궁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